

스벅도 찾는 '가루쌀'... 곡성 귀농인, 전국 보급 '앞장'

신동춘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 밥쌀용 벼·밀가루 대체로 주목 5년 전 첫 재배 도전, 판로 개척 지난해 150톤 생산 '성장 가도' 제과협회 등 유명제빵업체 납품

대표는 품질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타벅스에 빵 원료로 가루쌀을 납품할 정도로 재배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가루쌀은 일반 벼 대체 작물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빵아 가루로 만들어 빵·이유식 등 가공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2026년까지 재배면적을 4만20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으로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02년 고향인 곡성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 남들과 같은 작목과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생산해도 판로는 없고 노력에 비해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었

다.

이후 2007년부터는 친환경농업과 접촉해 밀 재배 불모지인 곡성에서 벼를 심을 눈에 이모작으로 밀 50ha를 재배했고 이듬해인 2018년 밀을 수확한 눈에 처음으로 가루쌀 1ha 재배에 도전했다.

주변에서는 재배 기술도 정립되지 않고 판로도 불확실한 가공용 쌀 재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첫 해 수확량이 10a(300평)당 540kg에 달했다.

일반 벼 545kg과 비슷했지만 3년이 되던 해 수확량은 580kg으로 늘었고 가격도 일반 쌀(40kg) 7만5000원보다 20% 많은 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첫 재배 당시보다 30배가 많은 30ha까지 확대해 약 150톤을 생산했다.

판로도 안정적이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제과협회와 스타벅스를 비롯해 유명 제빵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5개 식품업체에 원료용 쌀 15톤을 공급해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정부가 수입 밀을 대체하고 국산 쌀 가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가루쌀 보급 종자를 공급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올해는 가루쌀 생산단지 72ha를 조성해 현장 기술 보급과 안정적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실제 신 대표는 올해 농식품부를 대신해 가루쌀 종자 부족분 32톤(609ha 재배분)을 지난 4월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급했다.

전남도는 올해 8개 시·군 13곳 가루쌀 단지에 교육·컨설팅, 농기계 구입 등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730ha에서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신동춘 곡성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루쌀 가공시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군공향이전본부 신설

15실국 72과 체제로 전환 '5·18민주화운동' 용어 통일

광주시가 하반기 조직정비를 앞두고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 인력과 조직 운용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대신 5·18민주화운동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노동과 일자리 기능을 재배치해 기존 노동정책관을 문화경제부시장실 직속 노동일자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수정안의 주된 골자다.

또 본청에서는 군공향이전본부, 직속 기관으로는 119특수대응단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업소로는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와 광주시 유네스코미디어

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 신설된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 군공향교통국은 교통국, 인공지능산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교육원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의 지방자치분권 업무와 여성가족교육국의 인구정책총괄 업무, 민주인권평화국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모두 기획조정실로, 투자유치기획 업무가 경제창업실에서 인공지능산업실로 이관되는 등 11개 업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됐다.

군공향이전본부 신설로 본청 조직은 14실국 73과에서 1본부가 늘고 1과가 줄어 15실국 72과 체제로 바뀌고, 총정원은 4196명에서 4197명으로 1명 증원 조정됐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각각 2명씩 증가한 반면 협의제 행정기관은 3명이 줄었다.

김성수 기자



광산구 보건소 신청사 개소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의료기관협회, 시민 등이 14일 광산구 하남3지구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을 갖고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예방 접종실 등이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지수 측정, 혈압 등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건강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김영록 지사 "광주~영암 아우토타반 적극 추진"

영암 도민과 대화서 밝혀 "서남권 관광 판도 바뀔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영암 아우토타반(속도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타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뀐다"며 "전남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전남도, 영암군 관계자와 영암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도와 김 지사의 혁신 기조에 맞춰 영암군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으로 영암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관광·문화·복지·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영암을 생태힐링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이날 영암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암·삼호읍권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에 전남도가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소재지에 야간경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는 이미 관련 사업이 마무리 됐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영암군민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군민들은 대불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

명 설치공사와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국가산단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체 시·군의 노후 산단을 지원하려다보니 도·시·군 예산 매칭 비율을 3대 7로 하고 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을 70%까지 올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군 재정을 감안해 도 부담을 40~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도청 실국장들에게 "영암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안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은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 맛깔난 음식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 기반도 착착 갖춰가고 있다"며 "영암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산구의회, 오늘부터 제280회 1차 정례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조례안·일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석 의원)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공병철 의원) 등 총 6건이다.

회기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최식을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전반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전남도, 중국 동북지역 1667만 달러 수출협약

전남지역 기업들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 수출길이 뚫렸다.

전남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최근 6일 간 중국 창춘과 다롄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1667만달러 수출협약과 222만달러 상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동북지역 시장개척단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이다.

농수산물 7개 기업과 비료 등 공산품 4개 기업이 참여했다. 11개 기업이 62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성과를 냈다.

다롄세계박람회광장에서 개최된 '제36회 다롄수출입상품박람회'에서는 밀키트 제품이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삼면이 바다'가 전시한 밀키트와 해조류를 활용한 페스토 제품이 인기를 끌며 1667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최황지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증심사 입구·대각사·산장광장·정풍침터·산정·용진산 등 먹는물공동시설 6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안전성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자연 형성된 약수터·샘터·우물 등을 이른다.

광주시는 증심사 입구·대각사·산장광장·정풍침터·산정·용진산 등 6곳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